

광주독립영화관 GIFT 4월 11일 개관

4월 12일~27일

정성일 등 예술인 추천 11편 상영
이세영 등 배우·감독 '만남의 시간'

4월 12일~5월 2일

'인디피크닉2018 in 광주'

서울독립영화제 화제작 9편

4월 14일~17일 세월호 특별전



오는 4월11일 새롭게 문을 여는 광주시 동구 서석동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에 위치한 독립영화관 'GIFT'.

호남권역 첫 독립영화전용관인 광주독립영화관GIFT(이하 GIFT)가 4월 11일 문을 연다.

GIFT는 광주시 동구 서석동에 위치한 광주영상복합문화관 6층에 있다. 3D 디지털입체영상 볼 수 있는 첨단영상극장으로 총 105석 규모의 극장이다. 3D 첨단영상, 디지털애니메이션, 다양성 영화 등 상업영화에서부터 독립영화까지 모두 상영할 수 있는 첨단영상시설을 갖췄다. 디지털입체 음향시설, 와이드 스크린 등을 통해 첨단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GIFT는 오랫동안 독립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해온 지역영화인들의 모임인 '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운영한다. 기존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던 '충춘극장'은 5월부터 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GIFT는 11일 개관을 시작으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영화를 상영한다.

먼저, 광주의 독립영화 팬들을 위한 첫 번째 선물로 광주독립영화관을 응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추천한 한국독립영화를 상영하고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바로 'GIFT's gift'다.

4월12일 '과란 입이 달린 얼굴'을 상영하며 게스트로 김수정 감독과 이화경 소설가가 등장하며 13일에는 '열세 살, 수아' 상영 후 김희정 감독과 배우 이세영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 준비돼 있다. 또 14일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의 임대형 감독과 배우 기주봉이, 15일에는 '울드 마린보이'의 진모영 감독과 소설가 공선욱이 함께한다.

그밖에 영화 평론가 정성일이 추천하는 정재형 감독의 '호수길'(17일), 문학평론가 신형철 조선대 교수가 선정한 민용근 감독의 '혜화, 동'(19일), 소설가 이기호 광주대 교수의 추천작으로 문소리가 메가폰을 잡은 '여배우는 오늘도'(20일)가 상영된다.

또 고영재 프로듀서의 '고행'(21일), 이숙경 감독과 출연배우 지정남이 함께하는 '어떤 개인 날'



문소리가 감독·주연을 맡은 영화 '여배우는 오늘도'



영화 평론가 정성일 소설가 이기호



문학 평론가 신형철 배우 이세영

(22일), 박석영 감독과 조현주 편집감독이 토크에 나서는 '무산일기'(24일) 등도 만날 수 있다. 27일 마지막 상영작은 '설계자'와 '황제'로 두 작품의 메가폰을 잡은 민병훈 감독이 참석한다.

GIFT는 또 4월12일부터 5월2일까지 2017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화제작을 만날 수 있는 '인디피크닉2018 in 광주'를 진행한다. '이월', '살아남은 아이', '너와 극장에서', '소성리', '아파트 생태계' 등 장편영화 5편과 '여성으로 살아가기', '각각의 시간, 기억의 공간', '사랑이 꽃피는 지구별', '그들 각자의 거리에서' 등 단편영화 4편을 상영한다.

이밖에 4월14일부터 17일까지는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고 사건의 진상을 추적하는 영화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4월11일과 16일에 열리는 세월호 참사 4주기 프로젝트 '공동의 기억 : 트라우마' 시간에는 '어른이 되어', '이름에게', '상실의 궤', '목포의 밤' 등을 상영하며 11일 개관 특별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대화시간을 갖는다.

세월호참사 3주기 프로젝트 '망각과 기억 2 : 돌아 봄'은 4월14일과 17일에 열린다. 14일에는 '승선', '잠수사'가 상영되며 17일에는 '세월오적五賊', '걸음을 멈추고', '기억의 손길' 등이 관객들과 만난다.

또 '메이드인광주1 : 조재형'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영화감독 조재형의 회복과 재활을 위한 모금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조 감독의 영화를 상영하고 모인 관람료는 조 감독의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GIFT는 앞으로 오후 2시, 오후 4시30분, 오후 7시 3차례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며 한국독립영화만을 주로 상영할 계획이다. 관람료는 성인 6000원, 청소년·단체 5000원으로 GIFT홈페이지(www.gift4u.or.kr)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350-9340.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롯데갤러리 장용림 초대전 '꽃, 숨'

30일~4월 24일

참여 프로그램

'손 편지 띄우기'도



▶ '꽃인듯 그늘인듯'

광주 롯데갤러리(롯데백화점 11층)가 꽃향기 가득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19번째 지역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며 '창작지원전'을 진행하고 있는 롯데갤러리가 올해 첫 초대작가로 한국적 서정성이 깃든 채색화 작업으로 알려진 한국화가 장용림을 초청했다.

이번 작품전의 주제는 '꽃, 숨'(30일~4월 24일)이다. 오랫동안 '꽃'을 소재로 작업해온 장 작가는 "시간과 계절을 거스르지 않고 때를 알고 피고 지는 꽃들에게서 생의 고요와 함께 삶의 숙연함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녀의 화폭에 등장하는 꽃들은 흔히 우리가 만나는 화려함 대신, 은은함과 절제미가 돋보여 더 향기롭게 느껴진다.

두꺼운 장지 위에 형상을 그려 넣고, 석재와 분채 기법으로 자연에서 생겨난 그대로의 빛깔을 내기 위해 겹겹이 색을 올리는 그녀의 작품은 소박하지만 가볍지 않은 느낌을 주며 작가만의 독특한 미감을 만들어낸다.

작품 소재는 매화와 달개비, 진달래와 짙레꽃, 목화 꽃과 개망초, 동백꽃까지 사시사철 남도의 들녘을 수놓은 꽃들이다. 여기에 어머니들의 삶과 밀접한 조각보와 저고리, 보자기 등의 소재를 함께 배치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밤중 달빛을 머금은 백매화, 쪽빛 하늘 아래의 흰동백, 달 향이리 안에서 가득 담긴 새하얀 목화 솜꽃, 청아하고 맑은 기운을 뽐내는 청매화와 아련한 느낌의 홍매화를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 중 관객 참여프로그램으로 '사월의 손 편지 띄우기'를 진행한다. 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 및 동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광주문화예술상 의재하백련 특별상을 수상했다. 현재 전통과 형상화, 그림 색채화, 진경매화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1-18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포스터 등 공개

(재)광주비엔날레가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주제로 열리는 2018광주비엔날레 EIP(Event Identity Program)을 발표했다.

이번 EIP는 세계화 이후 민족적·지정학적 경계가 재편되고 있는 동시대 현상 속에서 정치, 경제, 감정, 세대 간의 복잡해지고 보이지 않게 굳건해지는 '경계'에 주목해 시작되었다.

2018광주비엔날레 시그니처는 기하학적 형태가 도드라지는 아방가르드 고딕 서체와 한글레터링 조합으로 구성됐다. 공식 포스터(사진)는 주제 '상상된 경계들'의 풍경을 제시한다. 광주의 역사성과 공간성에 착안하면서도 관람자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열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공식 EIP는 '기초측면/섬광'의 김기조, 김성구 디자이너에 의해 개발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 '전남 문화지표 보고서' 발간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 실태파악을 위한 전남 문화지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전남문화지표 개발을 통해 구축된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전남의 22개 시·군 전역에 대한 문화지표 연구 결과를 수록했다.

전남문화지표 체계는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공간, 문화인력, 문화참여 등 5개 대분류 영역

으로 구분했다. 5개 영역에는 각각 ▲문화정책은 정책수립, 정책기구, 정책예산으로 ▲문화자원은 문화유산, 자연환경자산, 축제, 전통문화 ▲문화공간은 문화기반시설, 문화시설활용 ▲문화인력은 활동단체, 활동인력, ▲문화참여는 문화복지, 문화향유 등 13개로 설정해 조사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가의 여객차 휴식을 한 차를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성식, 당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아·네를 위한 명상 사당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겨운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